

# 學術研究發表要旨

## 第 1 部 (水稻部門)

### 1. 관행농지단위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진<sup>\*</sup>, 박찬남

우리나라 농지의 관행단위는 지역과 지목에 따라 관행단위의 명칭(종류) 및 면적규모가 달라 농업조사 및 농업기술자도등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바 이를 조사정리코저 1,476개 시·읍·면을 한개 조사구로 하는 관행 농지단위의 종류와 면적규모를 조사 정리하였다. 논외 관행단위는 마지기로 통일되어 있으나 그면적의 크기는 80평에서 300평까지 모두 12유형이 있으며 이중 가장 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200평 유형(75.3%)이고, 다음이 150평 유형(16.8%)이었으며 대체로 논면적비율이 적은 지방(산간, 도서)이 마지기당 면적규모가 적은 경향이였다. 밭의 관행단위는 마지기, 하루갈이, 평의 3종이었고 이들의 사용비율은 각각 91.7%, 1.6%, 6.7%였으며 이중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30평에서 400평까지 15유형이 있고 그중 200평 크기의 것이 가장 사용비율이 높아 42.8%, 다음이 100평 규모로 24.0%였다. 하루갈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 사용되며 700평에서 3,000평까지 모두 9유형이

있으나 사육에 대한 분산이 커서 대표유형을 정하기는 어려웠다. 평가준을 사용하는 지방은 서울에 가까운 경기, 강원(영서) 중남부 지방이었다.

2. 쌀 增産技術指導를 爲한 自律示範團地會長の 活動效果에 對한 多變量解析에 關한 研究

※ ※※  
 (表顯研究所。楊州郡農村指導所。日本国九州農業試驗場)  
 ※ ※※  
 鄭奎鎔。桂鳳明。菊池文雄

1. 81 年 增産技術指導의 效率的인 活動으로 當農者의 呼応度를 높이기 爲하여 京畿道 楊州郡全域에서
  - 벼의 自律示範團地 100 個所의 當農者 1,900 名에 對한 反應度 調査
  - 새마을當農技術者로서 專任會長이 會員의 增收率提高
2. 主成分分析에 依하여  $Z_1$  (26.99%)는 希望的인 呼応度  $Z_2$  (21.01%)는 自己 主體加味度,  $Z_3$  (12.43%)는 一部分不応度 그리고  $Z_4$  (9.85%)는 選擇的 順応度를 나타냈음